

## 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기독교 사회생태윤리 모색

박용범 (호남신학대학교 조교수)

I. 들어가는 말 : 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윤리적 과제

II. 공유재의 성례전적, 우주적 모델

1. 성례전적 공유재
2. 우주적 공유재

III. 존 하트의 사회생태윤리

IV. 한국 사회에서의 적용 가능성

1. 한국적 사회생태윤리의 모색
2. 사회생태윤리에 근거한 한국교회의 과제

V. 나가는 말

DOI: <http://dx.doi.org/10.21050/CSE.2018.41.04>

---

• ABSTRACT •

---

## Exploration of Christian Socioecological Ethics in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Park, Yongbum(Honam Theological University and Seminary)

Human beings are living in the era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with the ability of dealing with and sharing huge amount of information and knowledge. Some scholars, however, point out that this revolution might produce some serious ethical problems. In particular, they worry about possible economic inequality and unfairness caused by imbalance between supply and production, which might deepen economic polarization and alienation that can result in lowering the quality of life. To play a more responsible role as Church in Korea, Christian socioecological ethics presents a reformatory approach for people who are discouraged in the dim future. Christian socioecological ethics which pursues structural change of a society with creation consciousness is awakened from ecological concepts of interrelatedness, interaction and interdependence. This paper overviews the notion of Christian socioecological ethics and explores how it is used as a tool for solving ethical problems in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This paper makes an attempt to propose an ethical alternative of fundamental change for creation consciousness and conduct. Improving of ecological sensitivity and interrelatedness developed by socio-ecological ethics will be a simultaneous solution for the crisis of Korean Church and society in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Key words:**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Socioecological Ethics, Sacramental Commons, Cosmic Commons, Creation Consciousness

---

## I. 들어가는 말: 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윤리적 과제

제4차 산업혁명은 인류의 삶을 이전보다 더욱 풍요롭고 편리하게 발전시켜 줄 것을 예측하게 하지만, 반면에 우리의 행동양식뿐만 아니라 정체성과 도덕성, 그리고 윤리관까지도 변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윤리와 과학의 상호보완적인 합의에 의한 가치관을 제시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과제로 부각될 것이며, 그러므로 여러 쟁점들에 대한 우리의 윤리적인 관심과 정당한 합의에 의한 약속을 실체화하기 위해 과학적 진리와 과학기술의 근본적인 의미를 재검토하고, 특히 생명에 대한 의미와 생태계의 도덕적인 지위 등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제4차 산업혁명시대를 이해하려면 그 주체라고 할 수 있는 인간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는 혁명이라고 하는 것이 본질적으로 인간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기술의 발달에 따른 세계관과 사회구조의 변화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인류는 그동안 욕망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향으로 양적이고 외면적인 성장을 추구하는 길을 걸어왔다고 할 수 있다. 간략하게 인류가 지금까지 거쳐 온 산업혁명들에서의 인간의 역할을 중심으로 회고해 보면 18세기 중엽부터 시작되어 약 100여 년간 이어진 제1차 산업혁명은 증기기관의 발명에 따른 기계로 인력보다 우세한 거대 동력 에너지를 생산해 인간의 손과 발을 대신했고, 19세기말에서 20세기 초반까지 이어진 제2차 산업혁명은 전기로 이를 조작할 수 있도록 했으며, 1960년대에 시작된 제3차 산업혁명은 컴퓨터와 인터넷을 통해 대량의 정보를 획득해 저장할 수 있게 되었다.

오늘날 인류는 제4차 산업혁명시대를 보내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인공지능과 기계학습, 생명공학, 사물 인터넷, 그리고 모든 분야의 융합을

통하여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방대한 양의 정보와 지식을 인지하고 공유하며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점차 증대시켜가고 있다. 그런데 많은 학자들은 제4차 산업혁명이 인류에게 엄청난 혜택을 제공하는 이면에는 각종 윤리적인 문제들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면서 지적한다.<sup>1)</sup> 그들은 제4차 산업혁명의 이면에 존재할 어두운 그림자에 대한 철저한 준비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인간을 능가하는 로봇이 지배하는 새로운 세상에 대한 두려움과 거부감을 극복하지 못하는 사회는 몰락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다. 개인에게도 재앙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인간을 대신하여 인공지능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어 기존의 직종이 감소되고 일자리가 줄어들면 빈부의 양극화가 심화될 것이고, 인간 소외의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 이는 혁신과 혁명적인 변화가 인류사를 돌아볼 때 인류 모두를 위한 삶의 질과 복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동일한 수준으로 끼치지 않는 것을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이다.<sup>2)</sup> 클라우스 슈밥(Klaus Schwab)은 경제학자의 관점에서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 더욱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되는 불평등과 불공평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공급과 관련된 노동과 생산 부분의 불균형으로 인해 빈부의 양극화가 심화되어 대중의 삶의 질이 오히려 낮아질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며 지적하고 있다.<sup>3)</sup>

제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심화될 것으로 예측되는 여러 쟁점들 가운데 생명공학분야는 가장 난해한 윤리적 문제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진보된 유전자 조작 기술을 의학 연구와 치료에 어느 정도의 차원까지

- 
- 1) 실제로 클라우스 슈밥(Klaus Schwab) 등과 같은 경제학자들은 제4차 산업혁명에 대해 낙관적으로 평가하면서도 혁명의 체제적 요인으로 심화될 불평등과 노동자와 자본가 사이의 빈부의 격차, 그리고 정체성의 혼란이나 각종 윤리적인 쟁점들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그의 책 『제4차 산업혁명』(서울: 새로운 현재, 2016)을 참고하시오.
  - 2) 클라우스 슈밥,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송경진 역, 『제4차 산업혁명』(서울: 새로운 현재, 2016), 32.
  - 3) 위의 책, 33.

적용이 가능한가에 대한 법적인 규제와 사회적인 규범을 만드는데 여전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이러한 문제들이 자본주의 구조의 사회에서는 경제적인 이슈와 관련하여 상업적인 성격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얽힌 윤리적 난제라고 볼 수 있다. 구체적인 예로 인간 복제에 의한 동일한 유전자 정보의 인간을 대량으로 출생하도록 인위적으로 조작한다면 생명의 가치와 존엄, 인간의 정체성과 공동체가 근본적인 혼란과 무질서에 빠질 것으로 예측된다.<sup>4)</sup>

제4차 산업혁명에 따른 현실로 다가온 이러한 논의를 그렇다고 무조건적으로 비난하거나 규제를 해서도 안 될 것이다. 그보다는 신학적이고 윤리적인 차원에서 좀 더 진지하고 신중하게 검토하고 연구하여 현실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성서에서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존재하게 되었다는 인간학으로 요약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하나님과의 교제가 가능한 영적이고 존귀한 존재로 설명하고 있다. 또한 인간은 돕는 배필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며 사는 존재로, 누구도 우월하거나 열등함이 없이 모든 창조 세계와 유기적인 상생을 위해 살도록 되어 있음을 알게 된다.

이처럼 새로운 혁명의 시대는 인류를 더 심각한 윤리의 경계로 몰아가고 있는데,<sup>5)</sup>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 예측해 볼 수 있는 또 다른 예는 인공지능과 관련한 복잡하고 위험한 쟁점들이다. 실제로 일부 학자들은 인공지능이 인류의 생존에 위협을 가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한다. 특히 인공지능을 활용한 로봇이 군사적 대량 살상의 목적으로 개발되어 사용된다면 영화 속의 터미네이터와 같은 이른바 킬러 로봇이 실생활에 버젓이 돌아다니며 위협적인 존재가 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하

4) 이경숙, 박재순, 차옥승, 『한국 생명사상의 뿌리』 (서울: 이대출판부, 2001), 30.

5) 슈밥, 『제4차 산업혁명』, 160.

지만 이와 반대의 입장에 서 있는 사람들은 폭발물을 처리하거나 폭탄을 운반하는 위험한 임무에서부터 인간을 보호하는 일을 인공지능 기반의 로봇이 대신하기 때문에 오히려 인명을 지켜주는 역할을 한다는 의견도 있어 만만치 않은 논쟁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언젠가 이러한 흐름 가운데 전투용 인공지능 로봇이 인간을 대신하여 등장할 것에 대비하여 지금이야말로 모든 인공지능형 로봇에 필수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어떤 윤리적인 기준과 제약이 모두의 합의 가운데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 인공지능의 미래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이에 대해 전망하려면 먼저 스스로 윤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인공지능 로봇의 존재가능성과 그에 대한 일종의 기준을 정하는 일에 대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웬델 월러치(Wendell Wallach)는 로봇공학(robotics)의 발달에 따라 도덕행위자의 범위가 인간을 넘어 인공지능 시스템으로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면서, 이를 가리켜 인공적 도덕 행위자(artificial moral agent, AMA)라는 개념으로 소개하고 있다.<sup>6)</sup> 그는 도구적 인간의 정체성에서부터 기인한 기술의 발달을 필연적인 과정으로 이해하면서, 구약성서 이사야의 내용을 인용하여 “칼을 녹여 쟁기를 만든다는 성경의 내용은 도구가 비용, 이득, 그리고 권력과 오랫동안 관련돼 왔음”을 의미한다고 지적한다.<sup>7)</sup> 즉, 도구적 인간에게 있어 도구 형태의 변화는 삶의 가치관과 우선순위 및 윤리 의식의 변화까지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다. 또한 제조사나 설계자의 선택에 따라 미래의 로봇은 자율적으로 행동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다면 로봇의 인공지능 시스템을 과연 어느 정도의 기술 수준에서부터 스스로 책임을

6) 웬델 월러치, 콜린 알렌, *Moral Machines: Teaching Robots Right from Wrong*, 노태복 옮김, 『왜 로봇의 도덕인가』 (서울: 매디치미디어, 2014), 14.

7) 위의 책, 69.

질 수 있는 AMA로 볼 것인가라고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 이를 위해 로봇을 더 이상 하나의 기계로 여기지 않고 의인화된 대상이나 인격성(personhood)을 갖춘 존재로 본다면, 그 순간부터 이미 로봇 자체에 책임을 부여하게 되고 인간과의 경계가 모호해지면서 윤리적인 난제가 발생하기 시작할 것이다. 이와같이 제4차 산업혁명으로 특징되는 현대문명의 기술진보에 따른 인간 소외의 문제가 인공지능의 발전을 통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측하면서, 인간의 인지능력과 감정, 무의식과 창의성의 영역에 과연 인공지능이 어느 정도의 수준까지 접근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이제는 신학적, 윤리적으로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시기이다.

이와 같이 제4차 산업혁명시대를 보내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 교회와 기독교 신앙의 영향력이 점차 증대되어 가는 현실 가운데 새로운 형태의 윤리적인 패러다임이 요청되고 있다. 지난 시대의 윤리의식에 비해 더욱 책임적이고 개혁을 이루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이러한 제4차 산업혁명시대를 살아가는 이들에게 무엇보다 기독교 사회생태윤리는 긍정적이고도 현실 개혁적인 세계관을 제시한다. 왜냐하면 생태학의 상호관계(interrelated)하며 상호의존(interdependent), 상호작용(interactive)하는 생태계 시스템에 대한 이해를 창조 의식(creation consciousness)과 자각(self-awareness)으로 사회구조적인 변화와 정의를 추구하는 실천과 접목시키는 기독교 사회생태윤리는 삼위일체의 관계성<sup>8)</sup>에 입각한 기독교적이고도 창조적인 전망(creative perspective)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기독교 사회생태윤리의 개념과 전개과정을 살펴보고 이를 어떻게 하면 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윤리적인 문제들을 해석하

---

8) 위르겐 몰트만(Jürgen Moltmann)은 자신의 『삼위일체와 하나님 나라』에서 전통적인 삼위일체론에 대한 변화를 촉구하면서 생태윤리적인 의미를 강조하고 있으며 내재적이고 사립과 평등으로서의 상호관계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의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이해는 “사회적 삼위일체론”으로 알려져 있다.

는 도구로 사용할 수 있을지 그 가능성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이는 기존의 사회윤리와 생태윤리의 개념이 단순히 만나서 하나로 통합되는 것이 아니라 통섭(consilience)<sup>9)</sup>과 지식의 융합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더욱 역동적이고도 현실참여적인 패러다임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며, 또한 앞으로의 다양한 윤리적인 문제에 적용하기 위한 지속적인 연구과제로 제안하고자 한다.

이 논문은 또한 우리가 더 본질적인 종교의식(religious consciousness)과 실천행위(conduct)의 변화를 이루기 위한 하나의 시도라고도 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이것은 구체적으로 기독교가 어떻게 하면 더 자연을 의식하고(nature-conscious), 자연과 관계하며(nature-related), 나아가 자연을 통합하는(nature-integrated) 종교가 될 수 있나 하는 질문에 하나의 답을 제시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고 볼 수 있다.<sup>10)</sup> 이를 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예측 가능한 윤리적인 문제들에 적용하여 하나의 대안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게 하려는 것이며, 그동안 개혁신교회의 전통 가운데 소홀히 다루어왔던 사회윤리의 생태학적인 측면의 강조가 더욱 광범위하게 기여할 수 있음을 증명하려는 것이다.

9) 흔히 서로 다른 분야들에서의 지식의 융합을 시도하여 새로운 것을 도출해 내는 것을 통섭(統攝, consilience)이라고 부른다. 여기에서 의미하는 지식의 융합은 학문들 사이의 크로스오버(crossover)로 분과 학문끼리의 융합, 즉 학제 간 연구(interdisciplinary research)를 의미한다. 제4차 산업혁명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방대한 양의 공유된 지식을 다루는 일에 있어 이러한 통섭을 이해하는 것은 가장 핵심적인 영역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10) 이러한 질문은 역사적으로 많은 토착 종교에서 다루어 온 것들이기도 한데, 특히 도교, 유교, 불교 등과 같은 동양의 여러 전통 종교들이나 북미 원주민의 신앙, 그리고 한국 고유의 종교라고 할 수 있는 동학에서도 이와 관련한 풍부한 아이디어를 실제로 찾아볼 수 있다. 본고에서는 이처럼 광범위한 종교 전통을 모두 다룰 수 없기에 동학을 중심으로 하는 한국 전통적인 종교와의 접목을 시도하려고 한다. 이에 대하여 Yongbum Park, "Chondogyo and a Sacramental Commons: Korean Indigenous Religion and Christianity on Common Ground," John Hart ed., *The Wiley Blackwell Companion to Religion and Ecology* (UK: John Wiley & Sons Ltd., 2017), 333. 을 참고하시오.

이러한 주제와 관련하여 기독교 생태윤리의 사회적 측면과 영성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오랜 기간 연구해 온 여러 학자들 가운데 존 하트(John Hart)가 있다. 그는 가톨릭의 윤리를 근간으로 하여 저술한 자신의 책 『성례전적<sup>11)</sup> 공유재: 기독교 생태윤리』(*Sacramental Commons: Christian Ecological Ethics*)에서 창조 의식(creation consciousness)에 따른 성례전적 공유재(sacramental commons)의 현대적 의미를 강조하면서 창조세계 가운데 존재하는 성령의 표식을 인간이 인식할 수 있음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키고 있다.<sup>12)</sup> 나아가 이를 기초로 하여 이후의 다른 저술들에서 그는 지속적으로 이를 발전시킨 사회생태윤리(socioecological ethics)라는 독특한 개념을 학문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하트의 사회생태윤리에서 근간이 되는 성례전적 공유재<sup>13)</sup>와 이의 확장된 개념인 우주적 공유재(cosmic commons)의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하고, 그의 사상에 영향을 끼친 대표적인 인물인 제임스 내쉬(James Nash)의 기독교생태윤리의 핵심적인 내용과 관련하여 생태학적 덕목들(ecological virtues)을 중심으로 살펴봄으로써 그들의 사회학적인 연관성을 찾아보고자 한다. 또한 하트가 이를 기초로 하여 전개하고 있는 기독교 사회생태윤리의 개념에 대해 기술하고, 나아가 이러한 아이디어를 통해 제4차 산업혁명시대를 살고 있는 현 세대의 더욱 복합적인 윤리적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긍정적인 실천 방안으로서의 기독교 사회생태윤리를 하나의 희망적인 패러다임으로 제시하려고 한다.

11) 'sacramental' 에 대한 번역을 '성사적인'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좀 더 기독교적인 입장을 강조하기 위해 '성례전적인'으로 번역하였다.

12) John Hart, *Sacramental Commons: Christian Ecological Ethics* (Lanham, MD: Rowman & Littlefield Publishers, Inc., 2006), xiv.

13) 공유재(commmons)란 한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접근할 수 있는 문화적, 자연적인 자원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공기, 물, 토양(사유화되지 않은) 등과 같은 자연 자원을 포함하며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것을 뜻한다. 경제 용어로 commons를 해석한다면 공유재, 또는 경우에 따라 공공재로도 번역이 가능하다.

또한 이를 구체적으로 한국 사회와 교회의 현장에 적용하기 위한 시도로 한국적인 상황에서 사회생태윤리의 구축을 시도해 보고, 이를 기반으로 하여 한국교회가 직면한 사회적 신뢰도 하락의 위기를 극복하는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하는데 본 논문의 목적이 있다.

## II. 공유재의 성례전적, 우주적 모델

진보와 발전을 추구하는 제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이하여 살아가고 있으면서 개선되기는커녕 더욱 심각해지는 것이 또한 생태계 파괴의 문제이다. 지구 온난화와 그에 따른 생태계 붕괴의 위협에 직면한 지구 공동체의 위기는, 단지 과학기술의 무분별한 남용이 가져 온 물리적 환경파괴만의 문제라기보다는 인간의 욕망에 의한 고도의 산업화에 따른 인간성 소외의 문제와 경제적인 불평등에 따른 총체적이고 통합적인 윤리적 이슈라고 할 수 있다.<sup>14)</sup> 이런 이유에서 지구 생태계의 위기와 관련한 윤리적인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역사적으로 인종, 성, 경제적 지위, 그리고 인간 이외의 생물체와 연관된 차별의 문제를 다루어 온 생태윤리의 사회학적인 접근법이 유효할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이들 주제와 관련하여 역사적으로 공유되어 온 윤리적인 문제점들과 그에 따른 대안들이 상호적인 대화를 통해 하나의 통합적인 해법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 1. 성례전적 공유재

가톨릭에서 오랜 기간 중요한 신학적인 주제로 논의해 온 성례전적 공유재(sacramental commons)의 개념이 전통적으로 기독교 사회윤리의 생

14) 김용휘, 『우리 학문으로서의 동학』 (서울: 책세상, 2007), 70.

태적 자원을 풍성하게 하는데 기여해 왔다. 이 연구를 통해 창조 세계의 아름다움과 다양성은 특별히 신적인 신비를 더욱 분명하게 드러내는 점을 강조해 왔으며, 이것은 또한 제4차 산업혁명에 따른 각종 윤리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하나의 해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사회생태윤리(socioecological ethics)라는 용어는 존 하트(John Hart)가 오랜 기간 발전시켜 온 개념으로, 그에 의하면 우리는 단지 인간 상호간뿐만 아니라 인간과 다른 창조물들, 그리고 또한 모든 생명체들 서로가 인지할 수 있는 지구, 우주, 그리고 창조 세계에 편재하며 초월적인 성령과의 교제를 이룰 수 있다고 한다.<sup>15)</sup> 하트는 자신의 연구를 통해 비전과 행동(vision and action), 영성과 윤리(spirituality and ethics), 그리고 의식과 수행(consciousness and conduct) 사이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규명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으며, 이것이야말로 사회생태윤리의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그는 기술하고 있다. 이러한 아이디어는 하트에 의하면 기독교만이 아닌 다른 종교 전통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특별히 본 논문에서는 한국의 전통 종교인 동학의 시천주(侍天主)<sup>16)</sup> 사상을 그 대표적인 예로 주목하고 양자를 탐구하여 한국적인 사회생태윤리의 구축을 시도하려고 한다.

기독교의 성례전 전통의 생태적 적용과 관련하여 그동안 여러 기독교 윤리학자들이 연구해 왔는데, 그 가운데 대표적인 학자들로는 앞서 언급한 하트 이외에 제임스 내쉬(James Nash), 셀리 맥페이그(Sallie McFague), 그리고 래리 라스무센(Larry Rasmussen)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이들의 공통적인 아이디어는 기독교 신앙이 전통적으로 세상은 하나님을 드러내며 또한 그 분의 인류 및 세상과 관계를 맺는 장소라는 점을 가르쳐 왔다는 것이다. 이들 대부분은 서구의 기독교신학과 윤리의 관점

15) John Hart, *Sacramental Commons*, 77.

16) 이것은 “한울님을 모신다”는 의미로, 동학의 창시자인 수운 최제우의 종교 체험을 바탕으로 제시한 21자 주문의 핵심내용이다.

에서부터 출발하여 성례전의 전통을 다루고 있는데, 하트는 이를 한국의 민중신학과 미국 원주민 인디언의 영성, 그리고 해방신학 등과의 비교윤리학적인 연구를 지속적으로 시도해 왔다는 점에서 그 차별성이 존재한다.

하트의 이러한 성례전 연구에 영향을 끼친 대표적인 학자인 제임스 내쉬는 자신의 『기독교생태윤리』(*Loving Nature: Ecological Integrity and Christian Responsibility*)에서 “자연은 관계에 있어 신성하며” 나아가 그 자체로서 “신성함을 품고” 있다고 말한다.<sup>17)</sup> 그에 의하면 현재 우리가 발을 내딛고 서 있는 곳은 “영속적으로 거룩한 터전”인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분께 예배를 드리는 거룩한 장소뿐만 아니라 “토양과 대기를 비옥하게 하는 곳에도 존재하기 때문이다.”<sup>18)</sup> 사실 로마서 8장에 나타난 것처럼 창조주는 “모든 피조물과 더불어 [기쁨과] 고통”을 함께 하신다.<sup>19)</sup> 이런 점에서 그는 자연을 결코 신격화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에 의하면 “성령의 성례전적 현존”은 모든 창조 세계에 “신성한 가치와 위엄”을 제공한다.<sup>20)</sup> 내쉬는 서구 개혁 교회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성례전적인 강조를 성령론의 관점에서 위와 같이 신학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동시에 그는 생태계를 위한 덕목들(virtues)을 열거하면서 기독교의 생태윤리적 가치를 복원하는 데 강조점을 두고 있는데, 감내력(sustainability), 적응성(adaptability), 관계성(relationality), 검약성(frugality), 공평성(equity), 연대성(solidarity), 생물종다양성(biodiversity), 충족성(sufficiency), 그리고 겸손(humility) 등이 그것들이다.<sup>21)</sup>

17) James Nash, *Loving Nature: Ecological Integrity and Christian Responsibility* (Nashville, TN: Abingdon, 1991), 115.

18) 위의 책, 116.

19) 위의 책, 108.

20) 위의 책, 116.

21) 이에 대한 설명은 위의 책 2장 63페이지 이후의 내용을 참고하십시오.

이러한 내쉬의 생태윤리의 사회윤리적인 접목을 발전시킨 하트의 표현에 따르면 “성례전적 공유재(sacramental commons)는 창조 안에 내재 및 초월(immanent and transcendent) 하는 영과 관여하는 인간의 거룩한 경험의 장소”이다.<sup>22)</sup> 그는 교회의 가르침에 의하면 이러한 이유로 “모든 창조는 거룩할 수 있으며 지구는 신자들을 위한 은혜의 수단인 거룩한 공유재로 봉사한다”고<sup>23)</sup> 하면서 기독교의 오래된 전통을 적극적으로 생태적 아이디어에 적용하고 있다. 또한 하트는 세계 종교와 다양한 영성 전통을 아우르는 영적인 경험 장소로서의 자연의 공통성을 오랜 기간 연구해 왔다. 그의 성례전적인 공유재와 관련하여 핵심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 “창조 중심적인 의식 (creation-centered consciousness)”은 과학과 생태철학, 성서와 역사신학, 사회학, 그리고 미국 인디언 영성 등을 통합하면 서도,<sup>24)</sup> 성서의 창조 이야기 전통에 그 기초를 두고 있다.

성례전적 공유재 개념은 하트에게 있어 창조 세계의 성령의 현존과 운행에 집중하게 하며, 이를 위해 생태적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성서 읽기와 다양한 인물들, 예를 들어 고백자 막시무스(Maximus the Confessor), 빙엔의 힐데가르트(Hildegard of Bingen), 아씨시의 프란시스(Francis of Assisi), 존 뉘어(John Muir), 그리고 북미 원주민들인 블랙 엘크(Black Elk), 필립 디어(Philip Deere), 데이빗 소해피 신부(David Sohapp, Sr.) 등의 도움을 받는다.<sup>25)</sup>

그는 또한 신적인 창조성의 공유재로서의 지구에 대한 비전과 모든 생물과 무생물 간의 상호작용에 있어서의 인간의 반응과 관련한 주목할 만한 비전을 제공한다. 하트는 성례전을 정의하기를 “인간을 신적 현존과

---

22) John Hart, *Sacramental Commons*, xviii-xx.

23) 위의 책, xxii.

24) 위의 책, xvii.

25) 위의 책, 9-11.

참여의 고양된 인식에 의해 스며든 은혜로 채워진 순간”으로 이끄는 일종의 “창조의 영의 표식”이라고 규정한다.<sup>26)</sup> 그러므로 그에 의하면 자연의 성례전은 동시에 인간을 성령과 생물 및 무생물 창조와 관계를 맺는 자리로 인도하는 자연에서의 “장소, 사건들, 혹은 피조물”이라고 한다.<sup>27)</sup> 이런 의미에서 지구는 은혜의 도구인 성례전적 공유재로 역할을 감당하며, 이것은 그의 후속 연구서인 *Cosmic Commons: Spirit, Science, & Space* (우주적 공유재: 영, 과학, 그리고 우주)에서 우주적 공유재(cosmic commons)의 차원으로까지 확장된다.<sup>28)</sup>

하트에 의하면 성례전적 공유재의 중요성을 깨닫고 이를 책임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자연에 대한 인간중심적인 지배(anthropocentric domination)의 구도에서 벗어나 창조 세계와의 관계적 상호의존성(relational interdependence)으로의 의식(consciousness)의 전환을 경험해야 한다고 한다.<sup>29)</sup> 이를 위해 우주에 존재하는 생물체뿐만 아니라 무생물계의 모든 구성원에게서 추구해야 할 내재적인 가치(intrinsic value)에 대해 그는 강조하고 있으며,<sup>30)</sup> 그들을 단지 도구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과의 관계적인 측면<sup>31)</sup>에서의 윤리적인 접근법을 개발하자고 제안한다.

그는 또한 공유재(common)의 성례전적 성격의 근거에 대해 설명하면

26) 위의 책, xiv.

27) 위의 책, xxiii.

28) John Hart, *Cosmic Commons: Spirit, Science, & Space* (Eugene, OR: Cascade Books, 2013), 7.

29) 위의 책, 117.

30) 위의 책, 181.

31) 하트는 다른 창조 세계에 대한 책임성을 구별하기 위해 관계적 의식(relational consciousness)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이는 모든 피조물을 존중하는 것에서부터 흘러 나온다고 설명한다. 또한 창조의 신성함과 모든 생명체와 공유하고 있는 장소로서의 지구에 대한 공감 인식을 증진시킴으로 이러한 관계적 의식은 개발된다고 보았다 (*Sacramental Commons*, 203).

서 “만일 인간이 공유재를 성령께서 존재하게 하는 성례전적(sacramental)인 것으로 본다면, 생태계를 존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며, 책임감을 갖고 돌보아야 하고, 그 안에서 성령의 표식을 찾아야 하며, 나아가 그 모든 산물을 정의롭게 배분해야 한다”고 말한다.<sup>32)</sup> 사실 이러한 사상은 최근의 것이 아니라 고대로부터 내려오는 기독교의 오랜 전통 가운데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 성서의 시작이 물질계의 기원을 의미하는 창세기에서부터 출발하는 점을 보더라도 우주에 대한 기독교 전통은 결코 성과 속의 이분법을 강조하거나 “저 세상”만을 추구하는 내세 중심적인 것은 아니었음을 알게 된다.<sup>33)</sup> 그러므로 우리가 이러한 성례전적 공유재의 관점으로 우주의 모든 존재하는 것들을 바라본다면 그 어떤 것도 단지 도구로만 여기게 되어 자칫 맞이하게 될 지도 모르는 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디스토피아적인 암울한 미래 세계의 도래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전망을 하게 된다.

이와 비슷하면서도 조금은 다른 어조로 래리 라스무센(Larry Rasmussen)은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것에서 거룩함(sacred)과 신성함(divine)을 구별하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이라는 의미는 아니다.” 그보다는 “그 존재 안에 계시며 그리하여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할 수 있다”<sup>34)</sup>며 자연을 신적인 면과 구분하고자 한다.<sup>35)</sup> 이에 대해 존 하우트(John Haught)는 더 신중하고 제한적으로 기술하고 있는데, 그에 의하면 세상을 성례전적으로 보는 것은 그것을 신성한 것으로 보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

32) John Hart, *Cosmic Commons*, 181.

33) Yongbum Park, “Chondogyo and a Sacramental Commons,” 341.

34) Larry Rasmussen, *Earth Community, Earth Ethics* (Maryknoll, NY: Orbis Books, 1996), 239.

35) 라스무센은 지구 공동체의 통합적인 윤리로서의 생태윤리를 강조하고 있으며, 종교와 윤리, 환경과학 등을 통한 생태윤리의 사회학적인 통찰력을 엿볼 수 있는 글로벌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참고, 위의 책).

설명하면서 자칫 범신론으로 오해받기 쉬운 부분을 경계하고 있다. 그는 “자연이 신성(sacred)하기 때문이 아니라 성례전적(sacramental)이기 때문에 가치가 있다”고 하며, 우리의 종교적 의식과 신적인 신비를 중개하는 역할을 창조 세계가 감당한다고 지적한다.<sup>36)</sup> 비록 이들은 신성함에 대한 정의를 조금씩 그 정도를 달리하지만 성례전적인 특성을 기독교 신앙의 중요한 하나의 가닥으로 보고, 나아가 인간으로 하여금 자연을 하나님을 품은 대상으로 보게 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 2. 우주적 공유재

현 시대의 사회생태윤리적 사고를 증진시키기 위해 하트를 비롯한 여러 학자들은 성례전적인 특성을 강조하면서, 또한 “성례전적 우주(sacramental universe)”의 개념으로 자신들의 사고의 영역을 확장시킨다. 본래 우주의 창조주로서의 하나님이 지닌 성례전적인 성격은 결국 공유재로 지역화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공유재는 우주보다 작은 규모로 존재하며 하나님은 현존하는 공동체에 현재적으로 드러난다는 것이다. 만일 성례전적 우주가 창조의 영속적인 속성을 나타내는 것이라면, 성례전적 공유재 접근법은 보다 지역적이고, 특정적이며, 개별적이고, 공동체적인 사회 경험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성례전적 공유재는 자연스럽게 우주로 확장된다.

사실 우주적 차원에서의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최근의 신학적인 발견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미 구약의 전통 가운데 여러 곳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sup>37)</sup> 바울 서신들을 중심으로 하는 신약의 다양한 찬가들<sup>38)</sup> 중에도

36) John Haught, *The Promise of Nature: Ecology and Cosmic Purpose* (New York: Paulist Press, 1993), 78.

37) 구약의 여러 부분과 예언서나 묵시서, 그리고 지혜서 등에서는 우주에 대한 관심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며, 대표적으로 창 49:25; 신 33:13~16; 수 10:12; 사 5:4~5; 욥

특히 우주적 그리스도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초기 교회의 여러 교부들과 중세의 신비가들,<sup>39)</sup> 그리고 기독교 생태윤리학의 성자라고도 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인물인 아씨시의 프란시스(Francis of Assisi)의 여러 글에서도 충분히 발견된다. 더불어 최근의 신학자들 가운데 위르겐 몰트만(Jürgen Moltmann)이아말로 그의 그리스도론을 우주적인 차원으로 발전시킨 ‘생태적 그리스도론’을 통해 이러한 사상을 광범위하고도 구체적으로 발전시켜 왔는데, 그의 이러한 생태계에 대한 관심은 창조론과, 성령론, 종말론에 이르는 신학의 거의 모든 영역에서 우주적인 차원으로 전개되어 왔다.<sup>40)</sup> 하지만 이러한 기독교의 우주론적인 전통을 공유재의 개념으로 연결하여 발전시키는 것은 하트가 처음으로 시도했다고 볼 수 있다.

그가 학문적으로 체계화시키고 있는 우주적 공유재(cosmic commons)의 개념은 이처럼 어떤 통합적인 패러다임과 지역적인 관심을 결코 분리시키지 않으면서, 동시에 열려있는 세계관적인 접근법을 형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본다. 하트에 의하면 우주적 공유재는 상호연관적(interrelated)이고, 그러면서도 서로 구별되며, 다양한 우주의 통합적 존재(integral being)<sup>41)</sup> 구성원 사이의 상호작용에 있어서 공간적, 지역적 맥락으로 구성되어 있다.<sup>42)</sup> 우주적 공유재에 관한 그의 이해는 이처럼

---

3:3~9; 9:5~10; 36:26~33; 37:1~13; 38:1~41:34; 시 8편; 146편 등이 있다.

38) 대표적인 예로 엡 1:3-14; 빌 2:1-24; 골 1:15-20; 히 1:1-4 등이 이에 해당된다.

39) 이러한 특징을 지닌 교부들 중에는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스, 이레니우스, 니짜의 그레고리, 그리고 신비주의자들 중에는 빙엔의 힐데가르트, 마이스터 에크하르트, 노르위치의 줄리안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40) 이정배 외 14인, 『현대 생태신학자의 신학과 윤리』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8), 236-249.

41) 하트에 의하면 통합적 존재(integral being)는 모든 우주의 실존하는 것들로 구성되어 있다. 신자에게는 신적인 존재(divine Being)가 포함되어 있지만 인문주의자에게는 우주에 이러한 신적인 존재가 현존하지 않는다는 점에 그는 주목하여 포괄적인 목적으로 이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생명의 영인 우주의 영을 통해 우주의 모든 존재들이 신성한 상호연관성을 나타내며 통합적으로 생태적 조직체를 형성해간다는 점을 분명하게 드러낸다.

### III. 존 하트의 사회생태윤리

사회생태윤리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존 하트(John Hart)는 제임스 내쉬가 사회윤리학으로 학위과정을 수행하고 오랜 기간 머물기도 했던 미국 보스턴 대학교(Boston University)의 기독교 윤리학 교수로 재직하면서 사회윤리와 해방신학을 기반으로 한 생태윤리의 여러 분야를 가르친 학자이다. 그는 생태학을 통한 과학과 사회학, 기독교 신앙 사이의 관계성을 연구하며 생태정의(ecojustice)와 생태영성(ecospirituality)에도 깊은 관심을 갖고 연구해 왔으며, 특히 미국과 캐나다의 가톨릭 주교들의 여러 공식적인 생태관련 문서들의 초안을 작성해 왔다.

사회생태윤리는 하트가 오랜 기간 발전시켜온 개념으로, 앞서 언급한 가톨릭의 성례전적 공유재(sacramental commons)의 개념을 지구에서 우주로 확장시켜 가면서 실천 윤리(praxis ethics)의 개념과 함께 일종의 분석적 도구로 사용되어 우주적 공유재(cosmic commons)로 향하게 하는데 기여하고 있는 비교적 신생 학문분야이다. 또한 그가 본래 가톨릭 신앙을 기반으로 한 적극적인 사회 참여를 강조하여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장기간 생태운동가로 활동해 온 것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실천성이 두드러진 특징이기도 하다.

그의 이러한 적극적인 사회참여적 윤리관의 뿌리는 뉴욕의 유니온 신학교(Union Theological Seminary)에서 박사과정 학생으로 있을 때 해방신학의 창시자인 구스타보 구띠에레즈(Gustavo Gutierrez)에게서 배운

42) John Hart, *Cosmic Commons*, 15.

영향이 크다. 비록 사회를 해석하는 기반이 하트는 해방신학의 마르크스적인 유물론이라기보다는 성서에 기초한 긍휼과 사랑의 해법에 두고 있다는 점과, 실천면에 있어 마틴 루터 킹 주니어(Martin Luther King Jr.)로 대표되는 보스톤의 비폭력 평화주의적인 전통에 더 근접하고 있기는 하지만, 해방신학의 대표적인 특징인 사회구조적인 죄를 중요하게 인식하여 그것을 사회학적인 방법론을 적극 활용하여 분석하고 비판하는 점은 공통적인 측면이라고 할 수 있다.

하트는 오랜 기간 북미 원주민의 생태영성에도 깊은 관심을 갖고 있으면서 인디언의 전통 악기 연주에도 조예가 깊고, 그밖에 라틴 아메리카, 흑인, 여성, 아시아의 생태윤리와 생태영성 연구에 집중하면서, 한국의 민중신학, 특히 탈춤과 판소리에 담긴 한(恨)의 문화에도 관심을 갖고 연구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하트가 서양의 어떤 학자보다도 한국적인 상황에 대한 이해가 깊은 점을 감안하여 그의 사회생태윤리가 한국적인 성격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는 것이다. 그는 또한 오랜 기간 북미 사회에서 생태정의와 정치적인 이슈와 관련한 사회 참여 운동을 주도하는 학자이자 사회운동가로 왕성하게 활동해 왔다.

사회생태윤리의 근간이 되는 하트의 성례전적 공유재에 대한 이해의 신학적인 기초는 1984년에 그가 저술한 『지구의 영: 땅의 신학』(*The Spirit of the Earth: A Theology of the Land*)에서부터 유래한다. 그는 이 책에서 “지구와, 지구 안에, 그 위에, 그리고 그 주변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창조주의 것이다... 하나님은 지구 위에 성육신하셨고, 일차적으로 그의 피조물과 창조주로서 경험을 하셨다... 하나님은 무한한 존재 안에 유한한 지구를 품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은 지구에 스며든다”고 말한다.<sup>43)</sup> 그는 나아가 “지구의 영은 하나님이시며, 위대한 영이시고, 초

43) John Hart, *The Spirit of the Earth: A Theology of the Land* (Ramsey, NJ: Paulist

월하지만 내재적인(transcendent and immanent) 분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창조주로서의 관계를 회복하셨으며, 지속적으로 그 관계를 회복해 가시는 분<sup>44)</sup>으로 하나님을 이해한다. 이런 면에서 그의 성례전적 공유재의 개념은 그 기원에서부터 철저히 하나님, 인간, 그리고 자연 간의 상호 관계적인 의존성의 특징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사회생태윤리의 개념을 확립해 가면서 하트는 사회생태학(socioecology)과 사회생태적(socioecological), 그리고 실천 윤리(praxis ethics)라는 용어들을 개별적으로 설명하는 가운데, 사회적 상호작용은 고립되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특히 관계(relation) 가운데 발생한다는 점을 강조한다.<sup>45)</sup> 이러한 관계성으로 인간이 다른 사람의 웰빙(well-being), 생물권의 웰빙, 그리고 환경의 웰빙에 관심을 두고 창조 보존을 향한 사회 정의 구현을 위해 투쟁하는 것이 사회생태윤리의 중요한 특징이라고 그는 규정한다.<sup>46)</sup> 그리하여 사회생태윤리는 사회와 지구의 웰빙을 위해 인간의 책임적인 실천을 통한 사회정의와 생태정의를 가능하게 하는 대화체의 통합적이고도 역동적인 이론과 실천을 제공한다.<sup>47)</sup> 그것은 “관계적이고, 이론적이며, 은유적인 기초”를 인간의 정의로운 행위에 제공하는데, 이는 인간 공동체와 모든 생물권을 위한 생태정의, 그리고 지구의 생태 웰빙을 위한 사회정의 실현을 돕는다고 하트는 강조한다.<sup>48)</sup>

결국 이러한 그의 사상을 한 마디로 요약하면 가톨릭의 전통들 가운데 역사적으로 생태적 아이디어를 풍성하게 제공해 온 성례전적 공유재(sacramental commons)와 그로부터 출발하여 하트가 전개해가고 있는

---

Press, 1984), 155.

44) 위의 책, 158.

45) John Hart, *Cosmic Commons*, 184-185.

46) 위의 책, 185.

47) 위의 책.

48) 위의 책.

우주적 공유재(cosmic commons)의 아이디어를 더욱 발전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다시 말해 그의 사회생태윤리는 생태, 정의, 영성, 실천, 대화 등의 개념을 하나로 통섭적으로 아우르며 생태윤리의 실천력을 극대화 시키는 방안으로서의 사회학적인 분석과 역동성을 더하는 독특한 윤리의 한 분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그의 사회생태윤리는 제4차 산업혁명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윤리적인 가치관으로서의 가능성을 제공해 주는데, 특히 개방과 방대함을 그 특징으로 하는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 발생 가능한 소외나 차별의 윤리적인 문제들을 위한 해법으로 중요하게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가능성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사회생태윤리라는 분야가 아직은 신생 학문의 영역이고 사회윤리의 다양한 이슈들을 다루는 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될 수 있을 지에 대해서는 미지수라는 한계성이 있음을 인정하며, 이는 향후 해결해야 할 연구과제로 남겨 놓는다. 더구나 특정한 컨텍스트에서의 적용 가능성에 대한 논의는 보다 다각적인 접근과 해석을 통하여 보편적인 정체성을 확보하는 선결과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아직은 미지의 영역인 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윤리적인 이슈들을 다루기 위해 사회생태윤리가 유용한 도구로 사용되길 전망한다.

## IV. 한국사회에서의 적용 가능성

### 1. 한국적 사회생태윤리의 모색

한국의 전통 종교인 동학의 핵심개념인 시천주와 가톨릭의 성례전적 공유재는 공통적으로 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위기를 의식(consciousness)과 실천(praxis)에 관한 것으로 간주한다. 왜냐하면 상상을 초월한 혁신은 인간이라는 존재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개념을 재정립하도록 만들 뿐

만 아니라, 이처럼 놀라운 발견과 막대한 정보지식의 증가에 따라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논의를 중점적으로 이어가겠다는 우리의 의식과 그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영역을 함께 연구하여 한국적인 사회생태윤리를 모색하는 과제는 선행연구가 별로 존재하지 않는 분야이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 일목요연하게 전부를 다루는 일은 쉽지 않은 일이다. 특히 체험적인 수행을 강조하는 동학의 시천주 개념을 서구의 기독교 전통에서부터 발전해 온 신생 윤리학 분야인 사회생태윤리와 비교하여 해석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인정한다. 마찬가지로 동학의 역설적인 방법론인 불연기연(不然其然)으로 가톨릭의 성례전적 공유재를 설명하는 것도 단순한 작업이 아니다. 이러한 한계점은 이 분야에 대한 앞으로의 지속적인 연구가 요청된다는 하나의 근거이기도 하다. 여러 학자들에 의해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시도되고 있다.

김용휘는 기존의 동학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키고 가톨릭과의 관련성을 보다 명확하게 설명하면서 서구 자본주의가 지향하는 경쟁논리에 의한 생명 파괴의 위협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동학을 소개하고 있다. 그에 의하면 “내 안에 모셔져 있는 우주 생명, 무궁 생명을 온몸으로 체험하고 내가 전체 우주, 전체 생명과 하나의 기운으로 통해 있다는 것을 자각하는 것”이 제4차 산업혁명이 가져 올 인간 소외와 같은 윤리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힘주어 말한다.<sup>49)</sup> 그는 “내면에 신령한 우주 생명을 모신 거룩하고 창조적인 우주적 주체로, 모든 생명을 자기의 몸과 같이 느낄 수 있는 감수성을 지닌 윤리적 주체”로서의 거듭남을 강조하면서 동학 수도를 통한 시천주 체험의 중요성을 언급한다.<sup>50)</sup> 나아가

49) 김용휘, 『우리 학문으로서의 동학』, 164.

50) 위의 책.

그는 동학의 불연기연이 과학과 종교를 통합하고 동양과 서양을 통합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론적인 틀로서의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고 기술하고 있는데, 이는 동학의 인본주의적인 한계와 특성을 잘 나타내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sup>51)</sup> 그의 주장은 인간에 대해 지나치게 낙관적인 입장에 서서 인간의 욕망으로부터 기인한 윤리적인 쟁점들을 다룬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여 기독교신학과의 학제간 대화를 통한 통섭적인 담론을 찾는 게 필요하다는 평가를 내릴 수 있다.

김지하는 수운의 시천주 사상을 피에르 테야르 드 샤르댕(Pierre Teilhard de Chardin)의 진화론과 관련하여 대비하면서 물질, 생명, 정신, 영성의 우주진화이론을 설명한다. 결국 그는 모든 물질이나 무기물 속에도 그 나름의 생명활동과 영성이 살아 움직이고 있고, 자기 조직화하는 우주는 물질 속에서 활동하는 생명과 영성의 지속과 비약 과정을 통해 끝없이 진화한다는 주장을 펼친다.<sup>52)</sup> 그에 의하면 신은 “모든 존재 위에 초월적으로 군림하는 실체이며 만물이 생성하는 근원”으로, 모든 생명과 물질 내부에서 “자발적이고 창조적으로 생성하는 마음”이라고 기술한다.<sup>53)</sup> 그의 진화론적인 생명사상은 물질의 근원에 대한 유물론적인 해석이라고 볼 수 있으며, 동학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도 가치판단의 기준을 서구 진화론의 과학철학에 입각하여 접근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가톨릭이나 개혁 교회 전통의 서구 중심적인 성례전 전통의 해석이나, 동학을 하나의 해석의 틀로 하여 서구의 사상을 조명하려고 하는 기존의 연구들은 다수가 존재해 왔으나, 본 논문에서 탐구하고 있는 동학의 시천주와 가톨릭의 성례전적 공유재의 비교 연구는 발견하기가 쉽지 않았다. 양자의 비교연구를 통하여 제4차

---

51) 위의 책, 92-95.

52) 이경숙 외, 『한국 생명 사상의 뿌리』, 166-168.

53) 위의 책, 169.

산업혁명이 가져 올 윤리적인 쟁점들과 관련하여 재평가하고 한국적인 사회생태윤리로 재구성하여 향후 대안적인 실천 프로그램의 형태로 교회와 사회 현장에 활용하는 작업이 본 논문을 통한 연구가 지닌 앞으로의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을 통하여 산출할 수 있는 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윤리적 쟁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사회생태윤리는 사회학의 변혁성(transformation)과 생태학의 관계성(relationship), 그리고 해석학과 방법론의 역할을 감당하는 윤리학의 융합 학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초월성(transcendence)과 내재성(immanence), 보편성(universality)과 특수성(particularity), 그리고 이론(theory)과 실천(praxis) 사이의 간극을 극복할 수 있는 윤리적 패러다임으로, 기존의 생태윤리학에 사회윤리학의 장점을 보완하는 하나의 통합적이며 창의적인 분야라고 할 수 있다.

이 논문에서 동학과의 만남을 도모하는 이유는 무엇보다 동학이 한국의 전통적인 종교사상을 대표한다는 점과 아울러 “나의 몸이 한울님을 모신 거룩한 성소”라는 인식과, 만물이 한울님을 모신 신령하고 거룩한 존재라는 시천주의 개념은 내면의 변화와 자아실현을 통해 “사회적 성화와 개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장점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는 또한 만물의 창조주로서의 성령에 대해 인식하는 기독교의 창조 의식(creation consciousness)과도 상통하며, 특히 우주를 하나님의 영이 존재하는 거룩한 처소이자 만물을 모두가 적당하게 공유할 수 있도록 창조했다는 성례전적 공유재 개념과의 비교 연구는 그동안 소외되어 온 연구 분야라고 할 수 있는 생태윤리학의 사회학적인 강조에 기여할 것이다. 아울러 동학과 가톨릭의 공통적인 생태윤리 개념을 통합적으로 비교, 연구하는 것은 종교간(interreligious), 학제간(interdisciplinary), 통섭(consilience) 연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본 논문은 서양 근대화의 물결이 한국 사회에 본격적으로 유입되기 이전에 자생한 동학의 혁명적인 평등주의적 사고가 각종 억압과 소외로부터의 민중을 해방하고 평등하게 존중하려는 사상을 내포하고 있었던 사실에 주목한다. 그러한 동학의 급진적이고 실천적인 사고는 한국 사회에서 사회윤리적인 개념의 선구자였으며, 그것의 사회적 인식은 현대 한국 사회의 생태윤리학과 생태 공동체 운동에 그동안 커다란 영향을 주어 왔다. 동학의 이와 같은 생태영성과 생태윤리의 사회 변혁적인 사상은 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인간중심적인 영향의 폐해를 극복하는 독창적인 한국적인 사회생태윤리학의 구축에 기여할 것이다.

## 2. 사회생태윤리에 근거한 한국교회의 과제

만일 한국 교회와 기독교 신앙이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인 문제들을 향하여 진정으로 의미있는 존재가 되려고 한다면 사회정치적인 상황에 대하여 영향을 주는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한다. 제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이하여 더욱 극심한 전지구적인 생태계 파괴의 위기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 시점에서 자원의 재활용이나 교회에서의 환경주일 준수, 전원형 교회의 운영이나 지구 공동체와의 관계성 윤리에 대하여 언급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우리가 이러한 도전을 좀 더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면, 우리의 더 본질적인 종교의식(religious consciousness)과 실천행위(conduct)에 변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사회생태윤리적 패러다임으로 한국 사회가 현재 직면한 현실을 바라볼 때 우리는 우선 한국 기독교와 사회에 서양 자본주의가 미친 부정적인 영향을 좀 더 솔직하고 겸허하게 직시해야만 한다. 소위 변영신학과 물질주의, 기복신앙과 성속의 지나친 이원론적인 분리, 그리고 이에 따른

자연의 과도한 개발과 자원 남용을 방조한 일은 위의 기준에서 볼 때 근본적으로 교회의 창조 세계를 위한 사역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명백히 반성해야 할 과오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잘못은 자연 생태계 파괴의 다양한 문제들을 유발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제4차 산업혁명시대가 가져 올 지도 모르는 윤리적인 문제들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도록 만들고 있으며 그 심각성은 점점 더 커져갈 것으로 예측된다.

서구 자본주의의 그릇된 과학중심주의와 힘의 논리에 의한 식민주의적인 착취와 억압은 전지구적인 총체적 생태계 파괴라고 하는 물질세계의 손실만 가져 온 것이 아니라, 이러한 영향을 받은 일부 한국 교회에 서구 교회의 번영 신학의 아류인 기복주의라는 암적인 존재를 양산해 냈다. 이는 제4차 산업혁명시대를 살아 갈 젊은이들의 미래 세계를 바라보는 시각에도 커다란 영향을 주어, 영원한 생명을 소중한 가치로 여기기보다는 물질적 소유의 많고 적음에 치중하는 가치관이 지배적인 것이 되도록 만들었고, 이에 따라 경제적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한국 사회의 청년들에게서 점차 희망을 빼앗아가고 있다.

본래의 기독교 정신을 대신하여 물질만능의 자본주의에 그 중심 사상을 내어 준 이러한 교회들은, 마치 로마 시대에 기독교가 공인되자 차츰 쇠퇴의 기로에 접어들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경건의 능력을 상실한 채 점점 겉모습의 화려함만 키워 온 흉측한 괴물의 형태가 되어가고 있다. 제4차 산업혁명의 새로운 전환기를 보내고 있는 한국교회는 이러한 모습에 시급히 경종을 울려야 할 때이다. 이제는 한국 교회가 개혁의 주체에서 개혁의 대상이 된 것은 아닌지 겸허하게 돌아볼 시기라고 여겨지며, 대형 예배당이나 대형 교단 등을 아직도 미덕이나 부흥의 산물로 보는 그릇된 가치관은 하루 속히 사라지고, 대신 한 생명의 가치가 존중되며 작은 것

의 아름다움이 높게 평가되는 의식의 전환이 요구된다.

즉, 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온전한 윤리적 가치관을 정립해 가기 위한 근본적인 방안은 앞서 언급한 제임스 내쉬가 제시한 생태적 덕목으로 재해석된 바 있는 초기 크리스천 정신인 겸손과 청빈, 절제와 나눔의 미덕을 회복하고 존 하트의 사회생태윤리적인 정신인 상호연관성, 상호존성, 상호작용, 내재하며 동시에 초월하는 성령의 역동성에 힘입은 창조를 중심으로 하는 의식(creation-centered consciousness)의 변화와 실천을 통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아울러 현재 한국 교회가 겪고 있는 다양한 문제와 위기 상황도 같은 방법을 통하여 해결이 가능하다는 믿음과 함께, 또한 이는 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윤리적인 문제들을 극복하는 길이라고 여겨지며,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 이는 가장 우선적인 한국 교회의 선교적인 실천과제이기도 하다. 이 지점에서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에 일거양득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희망을 보게 되며, 이것이 바로 한국적 사회생태윤리가 현재의 한국 사회와 이 땅의 교회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다. 물론 구체적인 결단과 실천을 위한 방안은 앞으로 더욱 협력하여 이루어가야 할 것이다.

## VI. 나가는 말

지금까지 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윤리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론적인 대안으로서의 사회생태윤리를 살펴보았다. 이 용어의 기원을 추적해 볼 때 여러 저술에서 사용된 하트의 개념에 대한 정의와 역사적인 전개 과정을 고찰하면서 아직은 다수를 통해 학문적인 공감대를 형성하지는 못한 개념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앞으로의 연구 과제로 심도있게 다루어야 할 필요성을 감지하게 된다. 기존의 머레이 북친(Murray Bookchin)<sup>54</sup>의 사회생태학(social ecology)이 코뮌주의(commune-ism)

와 아나키즘(anarchism)의 급진적인 방향으로 전개되어 보편적인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한 선례를 교훈으로 삼아 사회생태윤리는 학제간의 보다 통섭적인 연구과정을 통해 다수가 공감하면서도 보편적인 학문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보하는 일이 당면한 과제라고 할 것이다.

향후 이러한 연구의 신학적인 기여는 무엇보다 생태윤리의 사회적인 관점에서 성서를 보는 새로운 시각을 제공해 줄 것이며, 기존의 창조에 대한 새로운 해석학적인 패러다임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기독교 생태윤리학은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중에 있으나 어떤 일관된 학문적인 관점이 아직 확립되지 못한 상황이고, 더구나 교회와 사회에서의 삶의 변화와 개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논문에서 시도한 다종교, 다학문적인 대화를 통하여 더욱 포괄적이면서도 통섭적인 해석학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또한 이를 통해 사회윤리뿐만 아니라 기독교의 주요 교리인 삼위일체론, 기독교론, 성령론 등을 새로운 지평에서 이해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특히 제4차 산업혁명의 장밋빛 미래의 이면에 존재하는 생태계 파괴의 총체적인 위기에 직면한 현실과 관련하여 한국 사회의 여러 분야에서 그동안 산발적으로 참여적인 실천을 강조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제안과 시도들이 사회구조적인 변혁이나 거시적이고 패러다임적인 전환을 만족할 만한 정도로 성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 현실임을 본 논문은 주목한다. 이는 여전히 “큰 것의 아름다움”을 우선으로 추구하는 자본주의적 폐해의 영향으로 인해 거대종교의 형태를 지향하고 있는 일부 한국

54) 머레이 북친(Murray Bookchin, 1921~2006)은 뉴욕 태생의 러시아 이민 가정 출신으로 어려서부터 노동운동과 생태운동에 참여했으며 1960년대부터 “인간의 자연 지배에 의한 생태계 파괴는 인간사회의 지배구조에서 비롯된다”는 사회적 생태주의(social ecology)를 제창하였다. 그는 특히 급진적인 성향을 나타내면서 반자본, 반시장, 반국가(아나키즘)의 대안 운동으로서의 생태-코뮌주의(eco-commune-ism) 운동을 전개하였다.

교회의 현실에서는 더욱 그러하다고 볼 수 있다. 창조 세계에 대한 책임성과 돌봄의 사역이 근본 취지와는 다르게 때로는 교세 확장과 교회 홍보의 방편으로 사용되기도 했으며, 더구나 교회를 기반으로 하는 실질적인 기여는 매우 미약한 현실이 바로 이에 대한 근거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윤리적 패러다임과 교회적인 실천이 실제 사회에서의 삶이나 정치적인 영역과 상당히 분리된 채 지속되어 온 한국적인 상황에서는 국민들이 현실 세계에서 고뇌하고 있는 이슈들을 더욱 역동적으로 다루는 방향으로 윤리적인 의식이 재편성되어야 한다고 본다.<sup>55)</sup> 이러한 차원에서 만일 한국 교회가 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풍요와 진보에만 눈이 멀어 생태계 파괴의 위기를 의식의 전환이나 본질적인 신앙의 위기로 심각하게 인식하지 않는다면 이보다 더 큰 현실적인 위기는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미 생태계 파괴의 위기는 한국 사회에서, 나아가 지구 전체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가장 심각한 문제였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교회가 이를 의도적으로 무시해 온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지울 수 없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 예측되는 다양한 윤리적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으로서의 사회생태윤리적인 실천과 의식의 전환을 통해 한국 교회의 변화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가져 본다. 양극화와 인간소외의 심화를 비롯한 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윤리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 일은 또한 가장 중요한 교회적, 신학적인 과제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결국 그 해결 방안도 서로 깊이 관련되어 있다. 한국적 상황에서의 사회생태윤리가 주는 생태적 감수성 및 상호관계성 회복에 의한 청빈, 절제, 나눔의 의식이 존재론적인 위기에 처한 한국 교회와 절망하는 젊은이들, 그리고 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윤리적인 과제에 직면한 한국 사회의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 가는 하나의 방안이 될 것이다.

---

55) Yongbum Park, "Chondogyo and a Sacramental Commons," 340.

## 참고문헌

- 김용휘. 『우리 학문으로서의 동학』. 서울: 책세상, 2007.
- 김지하. 『생명학』. 서울: 도서출판 화남, 2003.
- 이경숙, 박재순, 차옥승. 『한국 생명사상의 뿌리』. 서울: 이대출판부, 2001.
- 코디취. 『20세기 문화지형도』. 파주: 안그라픽스, 2006.
- 클라우스 슈밥. 『제4차 산업혁명』. 송경진 역. 서울: 새로운 현재, 2016.
- 이정배 외 14인. 『현대 생태신학자의 신학과 윤리』.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8.
- 웬델 윌리치, 콜린 알렌. *Moral Machines: Teaching Robots Right from Wrong*.  
노태복 옮김. 『왜 로봇의 도덕인가』. 서울: 매디치미디어, 2014.
- Berry, Thomas. *The Dream of the Earth*. San Francisco: Sierra Club Books, 1988.
- \_\_\_\_\_. *The Great Work: Our Way into the Future*. NewYork: Bell Tower, 1999.
- Boff, Leonardo. *Cry of the Earth, Cry of the Poor*. Maryknoll, NY: Orbis Books, 1997.
- Gunkel, Robert J. *The Machine Question: Critical Perspectives on AI, Robots, and Ethics*. Cambridge, MA: The MIT Press, 2012.
- Hart, John. *The Spirit of the Earth - A Theology of the Land*. Mahwah, NJ: Paulist Press, 1984.
- \_\_\_\_\_. *Sacramental Commons: Christian Ecological Ethics*. Lanham, MD: Rowman & Littlefield Publishers, Inc., 2006.
- \_\_\_\_\_. *Cosmic Commons: Spirit, Science, & Space*. Eugene, OR: Cascade Books, 2013.
- Haught, John. *The Promise of Nature: Ecology and Cosmic Purpose*. New York: Paulist Press, 1993.
- Hollenbach, David. *The Common Good and Christian Ethics*. U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2.
- Lin, Patrick, Keith Abney, and George Bekey eds. *Robot Ethics: The Ethical and Social Implication of Robotics*. Cambridge, MA: The MIT Press, 2012.

- McFague, Sallie. *The Body of God: An Ecological Theology*. Minneapolis: Fortress Press, 1993.
- \_\_\_\_\_. *Super, Natural Christians: How We Should Love Nature*. Minneapolis: Fortress Press, 1997.
- \_\_\_\_\_. *A New Climate for Theology: God, the World, and Global Warming*. Minneapolis, MN: Fortress, 2008.
- Nash, James. *Loving Nature: Ecological Integrity and Christian Responsibility*. Nashville, TN: Abingdon, 1991.
- Park, Yongbum. "Chondogyo and a Sacramental Commons: Korean Indigenous Religion and Christianity on Common Ground." Edited by John Hart. *The Wiley Blackwell Companion to Religion and Ecology*, UK: John Wiley & Sons Ltd., 2017.
- Rasmussen, Larry. *Earth Community, Earth Ethics*. Maryknoll, NY: Orbis Books, 1996.
- Wilson, Edward O. *The Diversity of Life*. New York: W.W. Norton, 1992.
- \_\_\_\_\_. *Consilience: The Unity of Knowledge*. New York: Alfred A. Knopf, Inc., 1998.
- \_\_\_\_\_. *The Creation: A Plea to Save Life on Earth*. New York: W.W. Norton, 2006.

논문투고일: 2018년 6월 30일  
심사개시일: 2018년 7월 21일  
게재확정일: 2018년 8월 11일

---

 • 국 문 초 록 •
 

---

오늘날 학자들은 제4차 산업혁명이 인류에게 엄청난 혜택을 제공하는 이면에는 각종 윤리적인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특히 이들은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 더욱 가속화 될 것으로 예측되는 불평등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공급과 관련된 노동과 생산 부분의 불균형으로 인해 빈부의 양극화가 심화되어 소외 현상이 가중되고 대중의 삶의 질이 오히려 낮아질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교회가 세상에 대해 책임적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러한 현실에 직면한 이들에게 기독교 사회생태윤리는 일종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생태학의 상호관계하며 상호의존 및 상호작용하는 생태계 시스템에 대한 이해를 창조 의식과 자각으로 사회구조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기독교 사회생태윤리는 삼위일체의 관계성에서부터 출발한 기독교적이고도 창조적인 전망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한국적 사회생태윤리의 구축을 통해 양극화나 소외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의식의 전환을 이루어 한국 교회의 문제와 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윤리적 문제들을 함께 해결하기를 기대한다.

**주제어:** 제4차 산업혁명, 사회생태윤리, 성례전적 공유제, 우주적 공유제, 창조 의식

---